

하늘의 씨앗

The Good Seed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역 소식지 / Wycliffe Canada Korean Ministries Newsletter

특집: 어린이 선교 훈련

- 어린이의 마음에 선교의 씨를...
- 어린이 선교 교육을 위한 파일럿 워크샵
- 미니 선교 여행 (갓스타 어린이 합창단)

사역현장 이야기

- 카니누와 족의 “내일 봐요”
- 동원사역자란? “네자신을 배가하라!”



6권 1호 / Summer 2013



Published by 발행인:
Korean Ministries
Wycliffe Bible Translations of Canada
위클리프캐나다 한인사무국
4-14 Steinway Blvd.,
Etobicoke, ON M9W 6M6
Phone 416-888-2262
Toronto Office
Toll Free: 866-702-5273
Fax: 416-675-7504
Kroffice_Canada@Wycliffe.ca
www.wycliffe.ca

Editors / Translators / Checkers
편집 / 번역 / 교정
Daniel Yoon 윤기태
Gyoojun Lee 이규준
Gilsue Lee 이길수
Diane Lee 이희경
Christina Heo 허 은

Design 디자인:
Julee Park 박주리
Printed by 인쇄인:
Colorbox Design & Printing

Wycliffe Canada's Vision Statement
위클리프캐나다 비전선언문
A world
where translated Scriptures
lead to transformed lives
among people of all languages.
모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모든 언어 민족의 삶이
변혁되게 하는 사역

표지 설명:
김선경 사모가 이예원 어린이(5세)와 함께
어린이선교교육을 위한 파일럿 워크샵에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가 있는 곳을 찾아
표시하고 있다.

제호 설명:
정산 정해수선생(나이아가라 한인장로교회
은퇴안수집사)께서 위클리프 사역을
추원하는 마음으로 씨앗인 불꽃씨를
일부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준 선교사 / 한인사무국 디렉터

발행인의 글

사역자들이 좋아하는주일학교 사역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보통은 청년이나 고등부 사역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교적 성숙해서 가르침에 잘 반응할 뿐 아니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년부나 유치부 사역은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한다 해도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것일뿐, 진정한 비전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늘의 씨앗 이번 특집은 어린이선교훈련입니다. 신실한 위클리프 사역자들이 그동안 개발해놓은 자료를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하고 싶은 노력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유치부와 유년부 자료를 한글로 완성하여 올려놓았고 한 두 달 안에 다시 청소년부 자료를 게재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교재 개발자인 도로시아의 말처럼,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심는 것에 대해 그것이 언제 열매 맺을지 모른다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열매의 모습이나 맛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교사 리같은 손을 모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동전 한낱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무능력해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면, 정작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오죽이나 더하겠습니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처럼, 귀한 자원봉사자의 번역과, 파일럿 워크샵에 수고해주신 사모님들, 교재개발자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출발하게 되는 어린이/청소년 선교훈련이 하나님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가족 묵상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잠언 14:26) 하나님나라를 위해 애쓰는 부모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



도로시아 랜더



위클리프미국 어린이 사역 커뮤니케이션 부서 코디네이터 겸 전략간사

"여러분은 나중에 자라서 어떤사람이 되고 싶나요?" 1990년대에 남편과 제가 학생부서에서 섬길 때 흔히 하던 질문입니다. 그당시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 지역에서 성경번역과 문해사역을 마치고 귀임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은 주로 수퍼모델, 직업 선수, 교사, 소방관과 같은 것들이었지요, 우리들의 그 다음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나, 항공기 조종사, 또는 컴퓨터전문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직도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그러면, 가끔 한 두 학생들이 손을 들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자기네 모어로 쓰여진 성경이 없어서 성경번역을 기다리는 어느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혹시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기도해 보라고 어른들 중에 누군가 말해준 사람은 없었나요?" 이 질문에 손을 드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 그저 머리를 흔들며 "아니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모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모든 지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와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느낀 점은, 젊은 세대들의 관심 부족과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의 일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찌기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면, 즉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성경번역에 헌신할 것을 생각해보도록 일찍부터 격려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커서 청년이 되었을때, 성경번역 사역이라는 긴급한 사명을 맡아서 감당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말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없는 부족 리스트를 펼쳐보고 기도하는 아이들

남편 집이 학부과정의 언어학과 문해교육 코스들을 강의하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게는 위클리프 사역자들을 위한 어린이 교육자료를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복잡한 선교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만든 교육자료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대단히 만족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위클리프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섬길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료가 제게 도전하기를, 어린이들을 직접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이 자료들을 무료로 공급해 주면 어떨겠느냐 것이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위클리프 USA의 무료 온라인 어린이 교육자료가 탄생하게 된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건네받은 학습자료들과, 또 우리가 직접 고안해 낸 학습자료들을 함께 묶어서 모두 서른 아홉개의 "Bright Ideas!" 라는 공과 자료들을 교안과 학습지로 발간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기독교학교, 홈스쿨,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이 무료 교육자료들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무료 교육자료 페이지는 현재 위클리프USA 웹사이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인기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미국의 어린이 커뮤니케이션 사역팀은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로부터 사용후기와 소감들을 받고 있는데, 그 간증들을 읽어보시면 교사들이 이 자료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

“Bright Ideas”



- “Bright Ideas” 유치부 자료를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어린이들과 무언가를 함께 해야했는데, 이렇게 성경번역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세 살된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육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 크리스티나

- 웹사이트의 자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담당하는 교육목사인데, 5세부터 12세 사이의 소년 소녀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육자료들은 제가 찾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고, 대단히 훌륭합니다! - 데이빗

- 이 교안들과 자료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어느 특정한 성경 인물을 공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고 있던 차에, 위클리프의 교육자료를 찾게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 백키

- 어린이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선교사인데, 자료 중 몇 개의 특별활동들을 최근에 있었던 선교대회에서 사용했었는데, 전부 다 훌륭한 아이디어들입니다. - 레이철

- 저는 주일학교에서 여러 주 동안 이 자료들을 잘 이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그 절실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의 어린이들입니다. - 백키2

- 오후시간 내내 위클리프 어린이자료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사인저라, 이러한 훌륭한 자료들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사용해야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제가 아는 친구들에게도 이 웹페이지를 이메일로 알려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자넷

- 이 무료 교육자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디스아바바(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성경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무척 즐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 캄넌

- 웹페이지에 올려진 자료들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이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모두 감탄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무료로 공급되어서 제겐 얼마나 큰 복인지요. 저 역시 믿음선교로 살아가고 있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도 돈을 주고 살만한 여유가 별로 없는 형편인데, 이런 자료들을 무료로 공급해주는 선교단체가 있어서 제게 정말 큰 복입니다. - 슈

-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들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부모이고, 저의 가족은 도시에서 교회개척을 하는 중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은 제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유치부를 가르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본 중에 가장 흥미롭고, 잘 꾸며져 있으며, 적절하게 쓰여진 선교 교육자료들입니다. - 제니퍼

위클리프 캐나다의 어린이 교육자료를 보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글 번역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http://www.wycliffe.ca/wycliffe/resources/educational_resources.jsp?cat=43
 미국의 웹자료는 다음 주소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www.wycliffe.org/Resources/Kids/FreeCurriculum.aspx



어린이 선교교육을 위한 파일럿 워크샵

한진숙 선교사: 한인동원사역, 캐나다

지난 3월 초부터 5 주간 토론토한인장로교회에서 고한나, 김선경, 서소선, 이혜진 사모 등이 자녀들과 함께 동참했다. 유치부와 유년부 선교훈련 자료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자녀들에게 매 주 두세 과씩 시행했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실제 적용을 위해, 서소선 사모가 선교훈련 자료를 응용하여, 갯스타 어린이 합창단 수련회 때 3시간 이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13~15쪽에 실려 있다).

1. 실습한 프로그램이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을 나눠주신다면?

고한나

선교를 아이들 수준으로 낮추어서,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돕고, 재밌는 놀이로 경험하게 한 점. 특히 유년부 프로그램에서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감과 그것을 실행할 때 대상자들의 각각 다른 문화들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가르쳐줌. 그래서 성경번역이 언어와 문화에 맞게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중요성을 그 긴박성과 함께 게임과 이야기로 잘 풀어냄.

준비 과정이 처음엔 생소하고 시간이 걸렸지만, 곧 익숙해지고 쉽게 준비하는 방법들도 배움. 유치부 연령아이들을 많이 경험해 본 교사들, 유년부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잘 아는 교사들이 준비하면 훨씬 더 잘 하실 거란 생각이 듦.

이혜진

모든 레슨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었던 점.

가끔 준비하기 어려운 재료, 준비물이 있었지만 대체할 idea 들이 제공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음. 아이들이 이미 잘 아는 놀이들을 통해 선교를 나눌 수 있는 게 흥미로웠음.

김선경

학습 내용에 적합한 교구를 제시하며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게 하여, 어린이 학습자들에게 기쁨과 참여를 유발한 점. 교구를 하나 하나 준비해야 하는 정성 필요. 최소 일주일 전에는 준비를 해야만 수업을 진행 가능.

2.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고한나

매 주 사용하든, 캠프를 통해 진행하든,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일이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하고, 교회학교 신앙커리큘럼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박2일 캠프 프로그램으로, 매 달 혹은 두 달에 한번씩 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봄.

이혜진

오래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확신이 없는 아이들을 감안할 때, 먼저 구원의 확신과 기초적인 믿음, 신앙생활에 관한 레슨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선교에 대하여 배우게 되면 좀 더 많은 효과를 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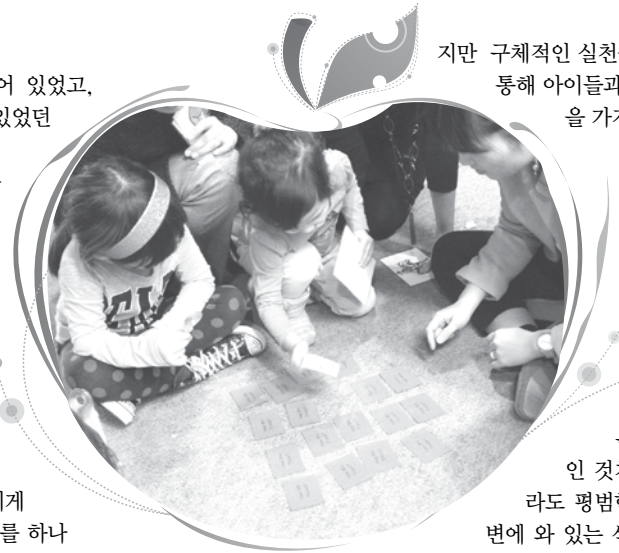
김선경

사전에 사역자와 협의를 거쳐 교사들을 준비시켜서, 2-3주 동안 선교 프로그램만을 집중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3. 프로그램을 진행/참여하면서 본인/아이들에게 있었던 변화는?

고한나

아이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고자 하던 열정과 고민은 있었



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못 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과 선교에 대해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세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SOCIAL STUDIES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선교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TOOL이 바로 현실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 운전수, 의사들이 차와 말 혹은 걸어서 세계의 많은 친구들을 찾아가는 게 선교인 것처럼, 오지를 향해 가지 못하더라도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색다른 언어와 문화의 사람들에게 삶을 나누는 게 선교란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남자 아이들이라 별 기대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에 너무나 재밌게 참여하면서 주일마다 이 프로그램을 기다렸다. 특히 몸으로 하는 놀이를 좋아했고 집에서 또 하자고 했다. 어릴 적부터 전 세계 국기를 참 좋아했는데, 나라별로 국기를 찾고 그 나라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아이들이 선교사님, 선교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공항에서 누군가를 모셔다 드리고 왔다고 하면 "선교사님이셔?" 하고 묻곤 했다. 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적절한 때에 정확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잘 연계되어 실시된다면 참 좋겠다 생각했다.

이혜진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도 한번도 선교에 대해 가르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성경번역의 필요성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그 동안 선교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는데, 대학 때 자주 단기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에 대해 꿈꾸던 때를 떠올리며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일학교 아이들과 더 많이 선교에 대해 나눌 TOOL이 있다는 게 참 기쁩니다.

예원이는(age 4) 물론 재원이도(age 7) 유치부 프로그램에 아주 즐겨 참여했고 더 하고 싶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자기도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 얘기 해주고 싶으면서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처럼 여행 가방에 필요한것을 넣기도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곳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고맙다고 하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재원이는 자기도 Chinese, Spanish, English, Korean 할 수 있다며 짧은 언어 실력이지만 하나님 일에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처음으로 선교라는 것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어요.

특히 multicultural 한 토론토, 그리고 자신의 학교, class를 생각하면서 Muslim 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원이는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며 믿어야 우리 천국간다는 얘기를 많이해서 캐나다 상황을 고려해 제가 주의(?)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재원이 선생님이 Christian 이셨기에 잘 이해해주셨지요. 선교라는 것이 먼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선경

한 부족, 한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분들을 통해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성경 스토리 위주로 가르치는 주일학교 성경공부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방법을 함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되었다. 우리의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또한 선교사들과 나눔과 기도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였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던 아이들이 선교에 대한 필요성과 그 상황을 알아갈 수 있었다

4. 이 프로그램에 대해 격려의 말씀 혹은 다른 분에게 소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고한나

선교나 선교사님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잘 소개되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선교의 개념을 쉽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선교 교육을 원하는 교단이나 어린이 전도 협회 등과 같이 어린이 선교에 열심이 단체와 협력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진

이 모든것이 set up 이 되면 정말 많은 사역자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를 너무나 크게만 생각해서 소위 평범한 개인이나 어린이들은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때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한다해도 있는 곳에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중요한 선교 사역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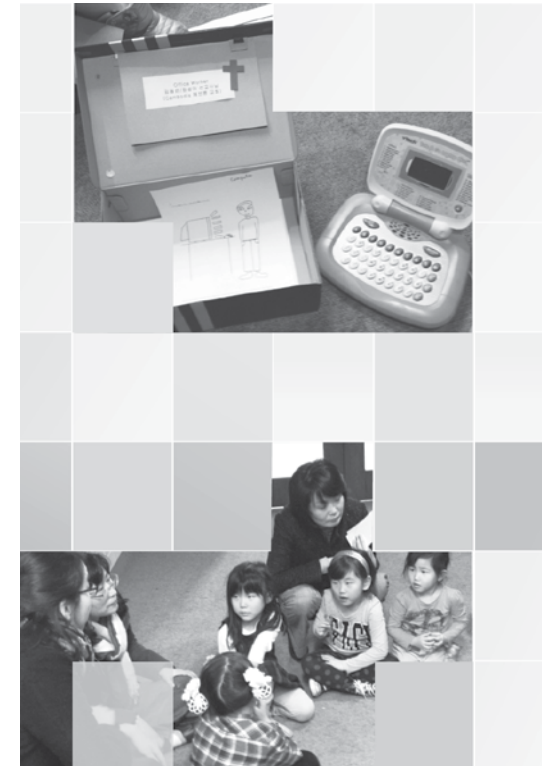
선교에 동참 할 수 있는 생활 속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위 파송받아 나가는 선교사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동참해야 하는 일이며, 아이들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배우게 해줍니다.

후기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시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더 잘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고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완성될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이뤄질 다음 절치들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려요!



“따나 끼띠야 꾸마나” “내일 봐요”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파푸아뉴기니에서 카니누와 종족 성경번역



조선향 선교사가 카니누와 아이들과 함께 그림 사전을 확인하고 있다. 가운데 사진은 바이탈에서 카니누와 번역팀과 함께 주기도문 초벌 번역 작업 중인 박선교사.

2010년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 파푸아뉴기니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족을 예비해 두셨을까... 두렵고 떨리는 맘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굿이넵(Goodenough) 섬에 사는 인구 600여명 정도 되는 카니누와 종족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소수 종족이지만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카니누와 사람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따로 언어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마을에서 종족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웠습니다. 다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실수도 하고 반복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어른이 되어 버린 우리로서는 순간순간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무시 당하는 것 같아 때론 화도 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따나 끼띠야 꾸마나’ 입니다. 번역하면 ‘내일 봐요.’ 내일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헤어지면서 이 말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당연히 내일 만나거나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첩에 적고 당일에는 이 만남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겠다면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했지요. 마을에는 전화가 없으니 연락할 방법도 없었을까야...하면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아... 이걸 아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한참 뒤에서야 카니누와 언어에는 시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로 번역하면 미래에 할 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 되는데, 카니누와어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즉 ‘따나 끼띠야 꾸마나’ 는 꼭 내일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은 카니누와 종족의 체면문화와도 관계가 있어서 내일 못 온다는 말을 차마 못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좌충우돌... 카니누와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 현지 번역자들에게는 저희가 어렸한 그들의 ‘멘토’ 랍니다. 번역하는데 필요한 성경지식, 번역기술, 컴퓨터 사용법 등을 함께 나누며 카니누와 번역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번역된 말씀들을 어떻게 활용하지,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 어떤 교재들이 필요할지 서로 의논하며 기도하며 방법을 모색합니다.

저희 번역자들은 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일 년에 세 번 알로타우에서 진행되는 바이탈*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다른 언어 종족 번역자들과 함께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번역에 힘쓰는 저희 번역자들은 2015년에는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발간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카니누와 공동체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성경 66권중에서 먼저 2권이 카니누와어로 번역되어 인쇄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600명 카니누와 종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바이탈*(VITAL)은 Vernacular Initiative for Translation and Literacy의 약자로 다중언어 프로젝트입니다. 한달 동안 진행되는 모듈이 2월, 6월, 10월에 있으며 11개 언어 종족에서 온 참가자들과 멘토들이 알로타우 지역센터에 함께 모여 성경을 번역하고 문해교재를 만듭니다.

+++
"네 자신을 배가하라!"



이규준 /한진숙 선교사

"네 자신을 배가하라!" 벌써 10년 전, 제가 처음 동원사역을 시작할 때 어느 베테랑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번역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가면 저 하나만 일하지만, 성경번역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성경번역선교를 위해 동원하면, 더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봅니다. '그 동안 배가해 왔는가? 했다면 어떻게, 못했다면 또 왜...?' 어려운 질문 같아보이지만, 제 답은 간단합니다. 혹시라도 배가한 게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동원사역자란...?

"세계 기독교 운동에 동참하라"는 랄프 윈터의 글(퍼스펙티브스, 제 134장)에 의하면, 동원선교사들은 선교현장과 지역교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점에서 선교현장의 선교사들과 같습니다. 동원선교사 역시 선교현장에서 뛰는 선교사들과 동일한 비전과 열정을 갖고 사역합니다. 그들과 같이 기도과 재정 후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선교현장의 선교사들이 주로 한 지역에서 정해진 대상을 위해 사역한다면, 동원선교사는 여러 선교현장을 방문하며 긴급한 선교의 필요를 알아내어 교회와 개인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원선교사들은 교회를 더 배웁니다. 선교현지의 선교사들이 선교 대상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저희 가정의 동원사역은...?

동원사역자로서 해야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성경없는 소수 언어 민족들을 위한 비전을 나누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가 선교의 필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헌신하려는 분들이 있을 때 선교사 허입과정과 자원봉사자로 헌신하는 것을 도와 그분들이 아직도 자기말로 된 성경이 없는 분들을 위해 사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헌신한 결과,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교회를 보내주셨고, 여러 선교사 가정이 위클리프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팀사역으로 이뤄진 것이고, 특별히 저희 가정이 그동안 잘 해 왔던 일들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선교 교육과 훈련 부분입니다. 많은 동원사역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잘스센터 선교훈련 프로그램이나, 첫걸음 선교이야기를 개발한 것은 저희만의 장점을 잘 활용하게 해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역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나 계속해서 더 낮게 발전시켜갈 때나 언제나 같은 마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역에의 도전...

오랫 동안 젊은 세대를 동원하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교회와 선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Life Impact Ministry의 도움으로 북미에서는 처음으로 라이프게임을 도입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부터 자체적으로 밀알교회 청소년부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런던제일교회EM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라이프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의 횃불을 부모 세대에게서 이어받아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설 것도 확신합니다.

동역과 배가에 감사!..!

여러분 개인들과 동역해주시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와 재정 후원 뿐 아니라 섬김 사역의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 처음에 물었던 질문, '과연 우리는 배가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하게 되면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선교사후보생의 숫자가 많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숫자로만 이야기되지 않는 다른 부분, 즉 사람들의 마음과 열정도 배

가움을 알려주셨습니다. 간혹 첫걸음 선교이야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켜주셨다는 걸 듣습니다. 그분들 안에 적어도 그만큼은 저를 배가시켜주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이 선교사가 여러 선교단체와 함께 힘쓰고 있는 새로운 선교훈련 프로그램 '카이로스'를 잘 훈련받아 한인교회들을 비롯하여 캐나다 안의 여러 교회들에 잘 보급할 수 있도록.

*한 선교사가 토론토한인장로교회 사모님들과 함께 힘쓰고 있는 어린이교육전문용 주일학교 선교훈련 프로그램 마련과 보급이 잘 이뤄지도록.

*가족들이 함께 섬기게 될, 여름에 있을 두 번의 라이프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하나님나라 사역에 헌신하게 되도록.

*한인사역팀 모두 격려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 감당토록.

*현재 선교의 비전을 품고 훈련받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해.

기도제목

2013년 여름호 (10호)

캐나다 한인 선교사

L 선교사: 성경번역, 보안지역

1. 파송교회에서 8월까지 사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2. 재파송 위한 협력 교회/개인 후원 동역자들 얻을 수 있도록
3. 섬기는 부족에서 좋은 헌자인 조력자를 얻을 수 있도록

홍현민/귀주: 교회 동원,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1. 아프리카 지역본부의 교회동원 컨설턴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심 감사
2. 위클리프 한국 이사회의 선교학 훈련에서 맡은 강의 잘 감당한 것 감사
3.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지도자들의 기도와 친교 모임에서 긴밀한 사귀는 기회 얻은 것 감사
4. 자주여행하는 저희 부부와 임신중인 큰 딸 지수의 건강과 대학 졸업한 둘째 딸 은수에게 지혜 주시도록

A / MF (모세, 이삭): 성경번역, 보안지역

1.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도 저희 가정의 지속적인 사역 인혜 감사
2. 번역된 모든 신약본문에 대한 수정 작업과 오디오 성경 녹음 사역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3. 대안에서의 안식월(6~8월) 잘 지내고, 아이들과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토록

박요섭/조선향 선교사: 성경번역, 파푸아뉴기니

1. 박선교사 부부 부재중에 진행중인 카니누와 번역자들의 사역을 위해 - 마가복음의 초벌번역과 이전에 번역된 구약 부분들의 마을집 검, 바이탈 프로젝트에서의 시편 번역
2. 카니누와 공동체가 사역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속 지원하며, 초벌번역된 주기도문 잘 사용하도록
3. 6-8월 캐나다/미국에서의 안식월 기간동안 후원교회/후원자들과 좋은 만남과 나눔이 있도록
4. 9월중 현지로 복귀예정. 새 힘을 얻어 10월에 진행되는 바이탈을 잘 감당하도록

김영수/이미자 선교사 (어진, 제시, 조엘): 훈련 및 돌봄 사역, 캐나다

1. 세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
2. 시카고의 트리니티신학대학에서 정신건강상담학 석사과정 상담심(이미자)과 성인교육학 박사과정에서 다문화배경의 사역팀에 대한 논문(김영수) 잘 마치고 감사
3. 6월 말에 토론토로 잘 이사함 감사. 부부가 각각 훈련과 멤버케어 사역 잘 감당하고, 아이들도 새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강창석/사라 선교사: 이사, 위클리프캐나다 이사회

1. 강선교사의 눈 치유에 감사, 지속적인 건강 위해
2. 이사들 모두 영적 성장과 분별력 통해 모든 안건 심의와 결의 감당토록
3. 부부가 말씀묵상과 기도로 성령 체험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4. 두 아들 가정이 영적성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고, 두 손자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도록

윤기태(양희숙) 선교사: 동원/인사, 캐나다

1. 인사와 동원사역 등 다중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2. 여름중 한국방문 통해 가족 재회, 후원교회/후원가족들과의 좋은 만남이 있도록
3. 라이프게임, 그리고 잘스 비전여행 및 훈련 프로그램 잘 준비할 수 있도록
4. 사역과 가정, 그리고 건강과 영성 모두에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이규준/한진숙 선교사: 동원, 캐나다

1. 두 자녀 동역 관계인 업스트림과 함께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감사
2. 올 여름 6월과 8월에 열리는 라이프게임을 온 가족이 잘 섬기도록
3. 첫걸음선교이야기 교재와 자료 영문번역을 8월말까지 잘 마치도록

김영돈/김지원 (제레마이아): 차량정비소장, 파푸아뉴기니

1. 주일 학교 교사들/선교사들과 함께 김지원 선교사가 인형극 워십 잘 마친 것 감사
2. 오토샵의 모든 동료들과 매 주 월/목요일에 경건의 시간 인도할 때 은혜가 넘치도록
3. 부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4. 캐나다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과 두 아들(요엘, 여호수아) 위하여
5. 함께 있는 막내아들(제레마이아)이 건강하고 즐겁게 현지생활 잘 감당하도록

한인사무국

1.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별 사역 팀을 인해 감사!
2. 지역별 기도팀의 지속적인 헌신과 열정에 감사!
3. 어린이선교훈련 사역 시작에 감사, 지속되고 확산되길 위해
4. 멤버십 진행과정에 있는 분들이 비전과 확신 속에 잘 준비되도록
5. 차세대 동원을 위한 사역자 충원과 실제적인 동원의 열매를 위해
6. 카이로스 운동이 내년부터는 한인교회에서 실행되도록



미니선교 여행 (갯스타 어린이 합창단)

MINI MISSION TRIP FOR GODSTAR CHILDREN'S CHOIR

행사 개요

이 프로그램은 '갯스타 어린이 합창단' (토론토한인장로교회)을 위해 지휘자 서소선 사모가 초등부와 유치부 선교훈련자료를 응용하여 만든 2시간 30분짜리 선교 배우기 및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인원: 30

소요시간: 2~3시간(20~30분/스테이션)

예산: \$200~400

교사/봉사자: 10명 (1~2명/스테이션, 리더 2명)

자세한 내용은 한인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Koffice_Canada@wycliffe.ca

Brief Intro

This program was designed by Christina Suh, conductor of Godstar Children's Choir of Toronto Korean Presbyterian Church, to educate children and help them experience missions for about 2.5 hours during their retreat.

of children: 30

Total hours: 2~3 hours (20~30mins/station)

Budget: \$200~400

Teachers & volunteers: 10 (1~2/station and 2 leaders)

for more in detail: call or email us



갯스타 어린이 합창단



서소선 사모

MINI MISSION TRIP FOR GODSTAR CHILDREN'S CHOIR

Station 1: What does it look like to live without having the Gospel? This hunger leads to eternal disaster. How can we share the Gospel that we already have?

Station 1 아직도 복음이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체험해볼까요...? 영적인 굶주림은 영원한 재앙을 가져요.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줄까요?



Station 2: How can you read and understand the Bible if it's in another language? Try Cree, one of the first nations Bibles...

Station 2 자기말로 된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크리 원주민들은 영문과 함께 Cree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줄까요?



Station 3 퍼즐 맵... 온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아직도 말씀 없는 나라들을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줄까요?



station 3: Nations still need God's words in their language. Let's find out where they live and pray together for them.

Station 4: Secret box... what are God-given gifts for you? All gifts are needed in building God's Kingdom!

Station 4 선물상자 안의 비밀... 여러분은 어떤 직업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직업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요?



station 5: To the field... A yurt-village where nomads people live in! Prayers, offerings, and the BIG help of the Holy spirit, we need to get there!

Station 5 선교지로... 유목민들이 사는 유르트 마을로 가볼까요...? 선교사로 가려면 기도, 헌금과 영혼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줄까요?



Start: 자 이제 선교지를 향해, 출발! 패스पोर्ट을 받아서 선교지로... 그런데 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요?

Start: hit the road... go for missions! Get your passport and to the mission field! But why are you going... for what and how...?



미니선교 여행 (갯스타 어린이 합창단)

스테이션마다 기도해요

Prayers at each station.

What to Pray?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New

God's love. An open book.

성경,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

Wycliffe serves minority language groups worldwide by fostering an understanding of God's Word through Bible translation, while nurturing literacy, education and stronger communities.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는 세계의 소수민족들이 성경번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동시에 문해사역과 교육, 더 나은 지역사회 건설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행사안내 **LIFEgame™**

라이프게임: 내 인생을 미리 살아볼 수 있다면...? 인생 및 신앙 생활 종합선물 세트, 라이프게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번 뿐인 내 삶을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다는 게 어떤것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18~21 대한기도원에서 런던제일장로교회 영어권회중과 함께 합니다. (속식 포함한 참가비는 200불입니다.)

Upcoming Event

LIFE game: What if you could live out your life in advance? LIFEgame is a program that gives you teh insights about one's faith and future! What does it mean to live as a Christian? LIFEgame shows you how to live from the eternal Kingdom's perspectives. London First Disciples will take part in and you are welcome to join them. (Registration fee including lodging and meals is \$200.)

재정후원안내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는 "민음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인 개인들과 교회들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중인 성경번역사역과 문해사역 및 각종 사회개발 사역이 지원을 받게 되고, 위클리프는 비영리 기관으로 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모든 사역비와 활동을 위해 보내는 헌금들은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CRA Charitable Donation #10822 3371 RR0001, 캐나다저서단체 연합 Canadian Council of Christian Charities의 회원입니다.) 더 자세한 재정후원 방법은 한인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ycliffe.ca, 416-888-2262, 905-348-2275)

Financial Support

Wycliffe missionaries do not receive a guaranteed salary from our organization. Instead, they rely on God to provide through the gifts of interested individuals and churches. Your financial gift to Wycliffe supports Bible translation and literacy efforts around the world and the gift is fully tax-deductible.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Inc. is a registered Canadian charitable organization (CRA Charitable Donation #10822 3371 RR0001) and a charter member of the Canadian Council of Christian Charities (CCCC). For more information in detail, please make contact with Korean Ministries or visit its website, wycliffe.ca.



캘거리본부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4316 10 St NE, Calgary, AB T2E 6K3
403.250.5411 / 1.800.463.1143
알버타 사무실 KM AB Office
유민주 간사 403.399.3584
Mimju_Yoo@Wycliffe.ca

한인사무국 (Korean Ministries)

동부사무실 416.675.6473
#4, 14 Steinway Blvd.,
Toronto, ON M9W 6M6
이규준 / 윤기태선교사
416.888.2262 / 905.348.2275
Kroffice_Canada@Wycliffe.ca

서부사무실 (KM BC Office)

604.513.2129
7600 Glover Rd.,
Langley, BC V2Y 1Y1
최금택 / 류금주 선교사
778.840.6938 / 778-839.6938
Paul-judy_choi@wycliffe.ca